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음 6월 6일) 제23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21대 총선... 전북 정치권 향방 - 하

전북 정치 시금석 '주목'

글 쓰는 순서

- 상·특정 정당만 짚어 온 전북 민심
- 중·평화당, '인물론'으로 승부
- 하·내년 총선, 전북 정치 시금석 '주목'

지난총선에서 전북도민은 더 이상 민주당을 전북 정치의 '영원한' 맹주로 인정치 않았다.

'공천 = 당선'이라는 일당독재 속에서 전북민은 민주당 아닌 타당 후보를 대거 당선시킨 '저력'을 보여주며 한 단계 성숙된 정치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전북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한 번 바꿔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내년 21대 총선이 전북 정치에서 또 하나의 시금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바라보는 내년 총선 낙관론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율에 배경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표로 이어질 것이라 이야기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6%다.

광주·전라(긍정 68%, 부정 21%)가 대전·세종·충청(긍정 48%, 부정 39%), 인천·경기(긍정 45%, 부정 45%), 서울(긍정 45%, 부정 47%)보다 높았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취임

직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치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친문 일색인 지도부는 이미 전북 정치권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 지역민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원활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민주당은 내년 총선 흥행을

민주 '낙관론', 도내 정치에 긍정적이지 않아 정치권 "지역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 될 듯"

100일 당시 지지율(긍정 95%, 부정 2%)보다 다소 하락하기 했지만 여전히 철옹성에 가깝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이 무려 14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압승 가장 큰 요인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이 같은 낙관론은 전북 정치에 긍정

위해 스타정치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띄워 총선 선거운동에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총선을 위한 '전투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북 확대와 역할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있는 지역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익산에 위치한 (주)한솔홈데코에서 정현울익산시장, 익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인들과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익산 중기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강화" 건의

전북도, 한솔홈데코에서 현장 간담회 열고 기업 목소리 청취 송하진 지사 "고용·투자 촉진 등 기업 안정화 집중해야 할 때"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업 현장속으로 달려간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지휘부와 경제부서장들이 직접 도내 주요 지역 산업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탈레이로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등 다양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주)한솔홈데코에서 익산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도는 물론 익산시, 익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경영활동상 겪는 각종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해소 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릴레이 현장간담회 추진을 통해 전북기업들의 현실에 파악뿐만 아니라 창업과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공유해 좋은 일자리 창출 시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더불어 현장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를 듣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민관의 협업과 기업·노사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가는 전북 경제 활력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첫 현장간담회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유치 및 증설투자 등 투자 촉진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부분별 지원 시책 및 협조사항'을 설명하였고, 유관기관·기업대표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의 진단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 현장과 근로환경을 시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확대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시책발굴을 건의하는가 하면 익산지역의 섬유·석재·귀금속 등 전통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속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매출둔화 등으로 고용역력이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기

가 더 어려운 상황이나,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고용과 투자 촉진 ▲근로환경 조성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안정방안 마련 등 현안이 겪고 있는 진痛的 강도를 깊이 받아들여, 기업의 안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행정 등 유관기관이 새로운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는 만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및 기존기업의 증설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집중 홍보를 통한 우량 기업 유치 강화와 기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한솔홈데코는 인테리어 자재 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근로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이 우수하며,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 마련 및 고용창출로 최근 3년간 20~30대 우수한 젊은 인재가 전체 근로자의 47%를 차지하고, 2021년 400억 달성을 목표로 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향후 증설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사회적 경제 · 도시재생 국제교류 강화

김승수 전주시장, 코스타리카 등 북중미 3개 국가 방문 전주시 우수정책 사례 발표 · 캐나다 사례 벤치마킹도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북중미 순방길에 오른다.

김 시장은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박 13일 일정으로 코스타리카와 캐나다, 미국 등 북중미 3개 국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 시장의 이번 북중미 방문은 사회적경제 방법론을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삼아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등 북중미 국가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으로, 코스타리카 정부의 공식 초청

을 받아 한국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방문하게 됐다.

특히, 전국가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의 이번 방문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을 통한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다른 회원도시 단체장,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대표단에 참여하게 됐다.

김 시장은 코스타리카 각 부처 장관이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 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에서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할 예정

이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코스타리카의 10여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도 방문, 양국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캐나다의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사례를 학습하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브루클린덤보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도 방문하게 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국가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높아 이번 방문 때 전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배워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